

셀트리온, 미래 성장동력 '2030 비전 로드맵' 공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셀트리온그룹의 신성장동력
'2030 비전 로드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회장 서정진)은 지난 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2030 비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계 두 번째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중국에 직접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38회를 맞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행사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투자자들에게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다. 셀트리온그룹은 2010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했고 올해는 메인 행사장인 그랜드볼룸을 배정받았다.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이 전체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 mAb)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2018년 처방액 기준 14억1천800만달러(약 1조6천540억원)를 기록해 시장점유율 81%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셀트리온그룹을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퍼스트무버'(시장 최초 진출기업)를 넘어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 바이오시밀러 ▲ 프라임시밀러 ▲ 신약 ▲ U-Healthcare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2030 비전 로드맵'을 그룹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소개했다.

'2030 비전 로드맵'은 인플릭시맙 최초 피하주사 제형 바이오의약품인 '렘시마SC'가 성장의 분수령이 된다. 서 회장은 "렘시마SC가 전체 50조원 규모의 TNF-α 시장에서 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10조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2월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직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2위 규모의 의약품 시장인 중국 시장 공략도 본격화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진출하며, 현재 중국 정부와 최종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주요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2만ℓ 규모의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직판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16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계획도 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2017년 5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으로부터 램시마 임상시험(IND)을 승인받아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중국에서 해외 기업 바이오시밀러가 임상 승인을 획득한 첫 사례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은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필두로 자체 기술력 및 제조생산 능력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능력 등 셀트리온그룹만이 가진 강점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